



성탄절 예배 시간에 특별 활동을 하는 언동르사이 아이들

성탄절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쓰라이난 전도사

“성탄절의 주인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

성탄절 예배, 언동르사이 교회에 1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페이스북에서 많은 할인 광고가 있는 것을 보셨죠? 우리 모두 이렇게 성탄절이 특별한 날인 것은 알고 있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쓰라이난 전도사가 목소리를 높여 열심히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탄절에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인 전도사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모습이 외국인 선교사인 저희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5명의 이웃 주민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소란스럽게 떠돌고, 분위기는 산만했지만 그분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이 땅을 처음 밟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기대하면서도 그 현장의 주인공이 저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들어 쓰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보다 더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의 주인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

저희는 선교의 주인공이 선교사가 아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선교 현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해서도 안됨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새해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예배 후 바베큐 파티

